



식품 公害는 予防할 수 있다

마음놓고 쓸수 있는 製品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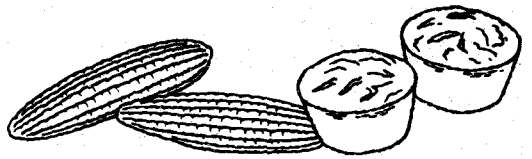
몇일전 암스텔담에서 열린 세계여성단체협의회에 다녀오신 이선생님께서 그곳에 머물고 계시는 동안에 브뤼셀에서 열린 세계 식품컨테스트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금상을 차지하였다는 뉴우스를 들어서고 얼마나 기쁘고 자랑스러웠는지 물랐다는 말씀 들은 우리들도 공감울 가질 수 있었고 흐뭇함을 느꼈다.

우리나라의 식품공업도 눈부신 발전을 하고 세계 시장에 많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10년전만 하여도 거의 외래품에 의존하던 식품들이 이젠, 국내에서 만들어져 우리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고 있는것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그 제품들이 100%가 다 소비자가 마음놓고 쓸수 있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기준미달된식품, 유해식품이 우글거리고 있으니 서글픈 일이다.

어린이들이 즐겨먹는 알사탕에 인체에 해로운 논 가리트가 함유되어 있다는가하면 서민층에서 거의



主婦클럽會員
吳 南 淑



매일같이 먹고있는 콩나물에 수은이 함유되었다. 두부에 석회(가) 섞였다하여 한동안 떠들석 하던일이 아직 우리들의 뇌리에서 사라지기도 전에 또 몇일전에는 홍차에서 유해성분이 검출 되었으니, 페인트원료를 콩기름으로 숙여 팔아 먹었으니, 부산에서는 두부에 공업용 염화칼슘을 사용하였다는 記事를 연이어 신문지상에서 보았다. 자기 자신의 營利만을 위하여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피해를 입는 소비자의 입장을 아랑곳 없다는 메이커들의 태도는 한없이 알뜰고 분노를 금치 못하는 일이지만, 여기에는 당국의 단속이 소홀하기때문이라는 것도 그대로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아닌가 생각된다. 어찌하여 그 부정식품들이 수개월내지 일년이상 제조되어 메이커들이 수십만원내지 수천만원을 치부하고 그와 비례하여 그 제품을 사용한 많은 소비자의 체내에는 독소가 축적된 후에야 발견이 되어지는지 아무리 선의로 이해할래야 할수없는 일이다.

규모가 큰 기업체내에는 제각기 자기네 제품이 만들어지기에 필요한 실험 연구실이 있고 식품공업을 전공한 사람들이 그곳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人体에 有害한 물질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毒素가 함유된 제품이 나오게 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규모가 작은 콩나물공장이나 두부공장이라 할찌라도 거창한 연구실까지는 갖추지 못할망정 최소한도 그 기업주만은 人体에 해를 끼치는 독소만은 가려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겠다.

当局의 감독이 보다 아쉽다.

資金만을 가졌다고 공장 세우게 허가해 줄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구비조건이 갖추어져야 하겠고 일단 허가가된 공장이라 할지라도 그 제품이 市中에 나오기전에, 다시 말하여 소비자가 사용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과정 제품의 품질을 충분히 검열하여 이상이 없을경우 소비자의 손에 올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한다. 이러한 要求가 지나친 욕심

일까.....?

바쁜 세상에 일손도 모자라는 판국에 그렇게 한가한 소리 말라고 비웃는분이 있을지 모르나, 지금 우리들은 대기오염, 식수오염등 공해때문에 위협을 받고있다. 이것들은 산업발달에 수반된 필연적인 부산물이라고들 한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限界까지는 막아 보겠다고 각방면에서 애를 쓰고 있다. 여기에 부정식품 공해까지 편승되어서는 않되겠다. 자그마한 성의만 있다면 미리 예방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가정주부들이 귀여운 아들 딸 가족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때, 빗갈을 곱게 하자고, 시간을 빠르게 하자고, 돈을 절약하려고 人体에 害를 끼치는 독소를 사용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 다만, 온갖 정성을 다하여 만들뿐이다. 이렇게 주부가 부엌에서 가족을 위하여 음식을 마련하는 정성같은 마음으로 메이커는 제품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이것이 잘 알릴때, 당국은 보다 강경하고 조직적인 단속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여서라도 여러가지 공해중에서 식품공해만은 미리 막아야 하겠고 또 막아질수 있다고 본다.

얼마전에 지금 시중에 꽤 많은 제품을 내고 있는 국산커피에 對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製品이 生産되기에 앞서 국내 여러 주요도시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試食을하게 하였고 거기에서 발견된 결점을 종합하여 단계적으로 그 맛을 시정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이젠, 거이 본고장것과 비교하여 손색없는 제품을 만들어 낼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비단 이 메이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체도에 올라선 우수 메이커들은 모두 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왔으리라 믿는다. 우리나라 모든 메이커들이 이렇게 진지한 태도로 제품을 만들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러한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하고 싶다.

그러하여 우리들이 국내에서 만들어진 가공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산 제품이 아니고는 먹을수 없다는 말을 들을수 있게 될 날을 기다리는 마음 간절하다.